

물가 0.3% 상승 그쳐 전기료는 5.1% 올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오르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다음 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연방노동통계국(BLS)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월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연율 기준 3%를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월간 0.4%, 연간 3.1%)를 모두 밑돌았다. 8월에 비해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완만한 수준이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0.2%, 전년보다 3% 상승해 각각의 예상치(0.3%, 3.1%)를 밑돌았다. 근원 CPI는 7월과 8월 모두 0.3%씩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번 CPI는 연방정부 섰다운 상황 속에서 공개가 허용된 유일한 공식 경제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솔린 가격이 4.1% 급등하며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그 외 항목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대체로 완화됐다. 식료품은 0.2% 올랐고, 전체 상품 가격은 0.5%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에너지 2.8%, 식료품 3.1% 상승을 기록했다.

식품 세부 항목을 보면 육류·가금류·생선·달걀 가격이 1년 전보다 5.2% 오르고, 비알코올 음료는 5.3% 상승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전기요금 5.1%, 천연가스가 11.7% 급등했다.

CPI 구성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0.2% 상승에 그쳤고,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도 0.2% 증가했다.

신차 가격은 0.8% 올랐으나, 중고차·트럭 가격은 0.4% 하락했다.

사진=shutterstock

9월 주택 거래 1.5% 증가, 모기지 6.17%

매물 1년새 14% 늘어, 전체 거래 30% 현금으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택 판매는 8월보다 1.5% 증가한 연율 환산 406만 건(계절 조정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지난 7개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9월 기준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연간 기준 남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으며, 월간 기준으로는 서부 지역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중서부 지역은 유일하게 소폭 하락했다.

이번 통계는 거래 종결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실제 계약은 주로 7-8월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모기지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금만큼 낮지는 않았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는 7월 초 6.67%에서 현재 6.17%까지 떨어졌다.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윤은 "예상대로 모기지 금리 하락이 주택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주택 구입 여건의 개선 역시 판매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재고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매물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55만 건을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현재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시장에는 약 4.6개월치 재고가 남아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치 재고가 '균형 시장'으로 간주된다.

윤은 "현재 재고 수준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낮다"며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어 압류나 강제 매각 사



례가 거의 없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자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판매된 주택의 중간 가격은 41만 5,200달러로,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53% 높은 수준이다.

첫 주택 구매자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모기지 금리 하락 덕분에 9월 첫 구매자 비중은 전체의 30%로, 지난해 같은 달의 26%에서 상승했다.

한편, 전체 거래의 약 30%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주택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33일로, 지난해 28일보다 길어졌다.

사진=shutterstock

내년 소셜연금 2.8% 인상, 월 평균 56 올라

사회보장국(SSA)은 2026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COLA)을 2.8% 인상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7,100만 명의 수혜자들은 내년 1월부터 월평균 56달러 이상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약 750만 명의 보충소득보장제도(SSI) 수혜자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당초 발표는 2주 전에 예정돼 있었으나 연방정부의 섰다운 여파로 연기됐다.

지난 몇 년간 COLA 인상률은 2023년 8.7%(40년 만의 최고 인상), 2024년 3.2%, 2025년 2.5%였으며, 올해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완화에 따라 소폭 줄어든 것이다. SSA는 12월 초 수혜자들에게 우편으로 새 연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 "생활비엔 턱없이 부족" 불만도

AARP(미국은퇴자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50세 이상 응답자의 77%가 "3% 안팎의 COLA 인상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이 견해는 정당 성향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AARP의 마이키아 민터 조던 최고경영자는 "COLA는 수천만 고령층의 독립과 존엄성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COLA 인상분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급여세를 재원으로 하며,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 상한은 2025년 17만6,100달러에서 2026년 18만4,5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